

부영그룹, 집중호우 수해 복구 지원 성금 5억원 기탁

재난 상황 때마다 지원... 그동안 1조 2천억 원 기부

부영그룹(회장 이종근·사진)이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24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을 기탁했다.

부영그룹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해 복구 성금 5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성금 기탁과 아파트 지원을 이어왔다. 2017년 포항 지진 피해를 비롯해 2019년, 2022년, 2023년 발생한 강원지역 및 동해안 산불 피해 성금을 기부했으며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영 아파트를 지원했다. 지난 3월에도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천안함 침몰 관련 유족 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



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을 기부했다. 또한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페루·콜롬비아 수재구호금 ▲라오스 구호자금 기탁 등 해외 재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 역사, 보훈, 장학·기부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부영그룹은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 /이승원 기자



광산구 동곡동 서호마을 “숙원사업” 광산구새마을회 지속적인 봉사활동

광산구새마을회가 지난 7월 21일 광산구 동곡동 서호마을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 다리에 쌓인 부유물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마을은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곳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시골 마을로, 다리 난간대와 상부에 쌓인 부유물과 잡목들을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의 유일한 통로를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지역 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한 시점에서, 광산구새마을회의 노력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도감을 주었음 것이라 생각된다.

광산구새마을회의 침수 다리 부유물 제거 작업은 지역 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한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광산구새마을회의 노력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의 유일한 통로를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 다리는 광산구 유일한 침수 다리로 장마철이면 침수되어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광산구 의회에서 동곡동 서호마을 신규 다리 공사 사업을 상정한 결과들을 돌이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행정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광산구새마을회의 노력과 지역 사회의 협력이 결합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오덕근 기자

보성군, 벌교읍 여성자원봉사단체 하반기 간담회 개최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과제 논의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22일 벌교읍행정복지센터에서 벌교읍 여성자원봉사단체 임원들과 함께 하반기 복지활동 협력 방안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벌교읍여성자원봉사회, 고향생각주부모임,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새마을부녀회 등 5개 여성단체 임원 15명이 참석해, 단체 운영의 어려움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상호 협력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하반기 중점 과제로는 폭염 취약

계층 및 고독사 위험군 보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강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등이 논의됐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서진석 벌교읍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키는 여성자원봉사단체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벌교읍은 여성단체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몇몇 중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산구의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에 발 벗고 나서 의원·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 평동 농가 찾아 구슬땀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복구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광산구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광산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은 평동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재정비하

고, 침수로 훼손된 농기구와 농작물을 정리하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명수 의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광산구의회가 한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김준행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함평군 대동면, ‘시원한 대동 여름나기’로 따뜻한 나눔 실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 실천에 나섰다.

함평군은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시원한 대동 여름나기’ 특화사업을 추진해, 무더위에 취약한 32가구에 여름이불세트와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무더위에 취약한 주민이며, 협의체 위원들과 대동면 직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재갑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시원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2025 장성 장소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성군 Jangseong